

신라말 불교계의 거목이었던 도선스님(827~898)의 법력은 세월의 간격과 상관 없이 한반도 전역에 스며 있다. 그러나 도선국사의 출생지와 생애의 절반 이상을 보내며 후학을 지도하다 입적한 도당에서는 도선스님을 기념할만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천년전에 천년후를 걱정했던 도인, 1996년 7월은 나라에 의해 '도선의 달'로 지정됐지만 스님의 출생지인 전남 영암군 근서면 동구림리에는 도선이 없었다.

스님이 태어난 곳은 공교롭게도 그보다 5백여년 전에 태어난 백제인 왕인(王仁)과 같은 곳이다. 일본에 반도의 문물을 전해준 왕인박사의 유업을 기리는 '왕인박사유적지'가 20년전에 조성돼 있을뿐 그곳이 도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흔적은 전혀 없다.

유적지에서 1km 가량 떨어진 구림마을에



◇도선국사가 35년간 주석하며 후학을 지도했던 광양 옥룡사터에 세워진 법당.



◇도선의 어머니가 갓난아기인 도선을 버렸으나 비둘기가 보호해 주었다는 전설속의 국사비유(영암 구림리).

고향은 자취도 없고 천년전설만 남아

도선국사 탄생·열반지 현장기행

남주최씨의 사당이 있고 그 뒷편에 도선의 어머니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아 내버렸는데 비둘기들이 그 아기를 키워 주는 전설의 바위 국사암이 있다.

"아이를 내버렸는데 날짐승들이 키우고 있음에 회한하고 무서워서 다시 데리고 가 되겠다. 그게 도선국사라는 것이다." 국사암 곁에 사는 주민은 "도선스님이 우리마을 태생이다 아무 징표도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소를 여는데 성역화 불사의 뜻을 맞추고 있다. 도선스님의 사적비도 세울 계획이다. 도당사에는 현재 국사전에 도선스님 영정을 모시고 있으며 도선 수미비에 스님의 행적이 기록돼 있다.

광양군 옥룡면 추산리 전남도 기념물인 동백림 가운데 위치한 옥룡사. 40평이 조금 넘는 현재의 옥룡사 건물은 25년전에 지어졌다. 18년전에 옥룡사를 인수받은 종건스님이 조석예불을 모시며

절을 지키고 있다.

"광양사에서 옥룡사 주변을 발굴 조사하기 위해 지표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에 일차 작업이 시작된다더군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 건물이 헐리게 됩니다. 발굴작업과 복원 사업을 시가 주도하는 것이니 잘 된 일이라 할 수 있겠지요." 종건스님은 옥룡사 능선 뒤편에 도선스님 창건 사찰이었던 운암사지를 복원하는 대규모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순천에서 벌교 방향으로 가다보면 삼사면의 운동산을 만나다. 산의 정상마루에

도선암(주지 승조)이 자리잡고 있다. 도선암 아랫마을에는 '도선국사 모친의 묘'로 오래동안 전해져 온 묘가 있다. '별초를 하면 복이 온다'는 설이 있어 풀이 자랄 틈이 없었다지만 현재는 도굴의 흔적이 역력하고 소나무와 딱갈나무가 무성해 묘인지조차 모를 정도다.

도선암 주지 승조스님은 "도선국사가 옥룡사에 들어가기전 모친을 모시고 이곳에서 보임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되지만 묘와 관련된 내용은 전설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님은 산의 주인과 협의해 묘를 새로 조성하고 매년 제사를 지낼 계획이다.

이웃 도갑사에서 기념관·사적비등 성역화 준비

도선스님의 출생지에서 가장 인접한 곳이 위치한 도선스님 창건 사찰인 월출산 도갑사에서는 그간 왜곡되고 비하된 도선스님의 업적과 사상을 바로잡기 위한 불사가 준비되고 있다. 도갑사 주지 도현스님은 최근 <도갑사 사적기>와 <도선실록>을 찾았다. 16세기 중반에 기록된 사적기는 서울대 규장각에서 2백50여년 전에 쓰여진 실록은 대흥사 서신대사 유물관에서 각각 찾아내 전남대 고문화도서관 박물관장에게 번역을 의뢰 최근 번역을마친 것. 도현스님은 이 두 사료를 도선의 달을 맞아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목포대 박물관이 진행하고 있는 도갑사 주변 발굴 작업도 계속 추진하고 오백나한전을 세워 국민안 기도도량으로 삼을 방침이다. 지난 20일 단오를 맞아 처음으로 영암군과 함께 도선스님 제사를 지낸 도현스님은 도갑사에 도선스님기념관을 세우고 도선사상연구

인터뷰 도선국사 국제학술회의 준비 김지건 박사

"풍수는 여업 본업은 연좌망언"

"도선의 법문(法文)이 말했듯이 도선이 운수행각을 마치고 백계산 옥룡사에 주석한 뒤로 연좌망언(連坐望言)에(宴坐望言三十五年), 즉 혼자 앉아 있으면서 말을 잊은 자가 35년이나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선사로서의 도선스님의 참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문체부가 '7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도선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 전남 광주시에서 열리는 '도선의 재조명' 주제 국제불교학술회의를 삼각산 도선사(주지 동광)와 공동주최하는 대한전통불교연구원장 김지건교수(65·정신

문화연구원)는 '풍수가 도선의 여업(餘業)이라면 본업은 연좌망언'이었다고 말한다.

수년 전 '사문 도선상 소묘(沙門 道說像 素描)'라는 글을 쓰면서부터 도선 관계 논문들과 자료를 틀들이 연구해 온 김교수는 최근 몇년간 새로운 자료가 발견돼 도선의 스승인 동리산 개산조 혜철(惠哲)스님과 중국 지장스님의 법맥이 신라승 무상(無相)으로 이어지는 관계문헌이 고종때 신라 선종사상 법맥이 확실해 짐으로써, 종래 추측에 지나지 않던 도선스님의 참면

글=임연태 사진=고영배



모가 점점 드러나는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부가 마땅히 진리까지도 초탈해서 자정할 것이어늘 어찌 울음이 문자에 사로잡혀 있으랴" 하는 것이 도선의 선풍(禪風)이었다는 것. <재

-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전시자료: 도선스님관련 책자 및 사진 등
- ▲방송: <다큐멘터리> ▲주최: KBS1 라디오(문화살롱)
- ▲일시: 96.7.1. 오후 10:05~11:00
- ▲내용: 도선스님의 생애 및 업적
- ◇연속 기획
- ▲주최: EBS TV
- ▲일시: 96.7.1~7.6 오후 10:05~10:10
- ▲내용: 도선스님관련 자료 화면으로 구성

나의 수행일기

정우부 <승려간>

10여년전 후배의 작업실에 가서 나는 목각으로 조성된 부처님 고행상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세상에 저런 부처님상도 있구나'라는 생소함에 '늘 보아 오던 온화한 부처님이 아닌 저런 고행상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라는 의구심까지 합쳐져 머릿속이 혼돈스러웠던 것이다.

알상하게 드러난 뼈와 범접하기 어려운 위엄의 조화, 그것은 내게 어떤 화두라도 던져 주는 것만 같았다. 나도 인연이 닿으면 저런 부처님을 조성해 봐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그런 인연은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생활기록부 종교란에 꼭 불교라고 써 왔다. 어머니가 열심으로 절에 다니시니까 나는 절에 한번 가면 일도 없으면서 그렇게 써 온 것이다. 성인이되고 조각일을 하면서도 그저 마음속으로 '나는 불교신자'란 생각만 가졌지 일부러 절을 찾아 기도하거나 가족의

회원들과 어울리며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는 생활을 하게 된것은 미래의 나를 부처님께 다가가도록 하는 일이란 가르침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절에 있던 작업장에 있던 나는 부처님과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하며 행복해 한다.

그런 가운데 나는 오래전에 보았던 부처님 고행상을 다시 머리에 떠올리게 됐다. 그러나 선뜻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다. 아직 인연이 아닌 탓이려니 여기며 머릿속에서만 고행상을 다듬고 있을때 오대산 북대 화광스님으로부터 "년고행상을 모시고 싶으니 한번 조성해 보라"는 제의를 받았다.

스님의 제안은 내게 힘을 주었다. 그간

실패끝에 부처님 고행상 완성

새벽기도 올리고 조각칼 잡으면 마음 평안

복을 비는 축원 카드 한장 등록하지 않으며 지내왔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있는 것인가. 내게도 불교 신행 활동을 할 기회가 왔다. 주변의 인연으로 인해 나는 보리방송 모니터회 강연도처에서 이틀 석자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모임을 통해 나는 기초

불교신행도 해왔고 여러 절을 다니며 부처님께 기도도 했으니 이제 나의 재주로 부처님의 고행상을 조성해 볼지는 생각이 용이로 바뀌어지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에 그렸던 부처님, 고행하시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온갖 번뇌와 고통을 초월하는 힘을 표현하고



교리도 배우고 큰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정기적으로 성지순례도 하게 됐다. 처음에 나를 기쁘게 했던 가르침은 '인간 몸 받기 어렵고 남자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나는 행복했다. 인간으로 태어났고 육신이 온전한데다 조각일을 하는 재주(하찮은 재주일 뿐이지만)까지 타고나 부처님상을 조각하고 싶은 마음까지 내게 됐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메스칼들을 접하면서 불교를 왜곡시키거나 비하시키는 부분이 없는지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좀더 공부해야 한다는 의욕을 갖게 되고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인간으로 태어나 정말 값지게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거듭거듭하게 됐다. 아마 어린시절 내가 불교라고 생활기록부를 작성한 것이 긴 인연의 한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싶다.

싶었다. 고행상이되 고행을 뛰어넘는 상호를 조성하고 싶었다.

그러나 실패했다. 마음 속의 부처님은 내 조각칼 끝으로 나뉘지 않았다. 나는 실망했다. 화광스님이 용기를 새로 불어 넣어 주셨다. "잘 하려는 마음이 너무 컸나 봅니다.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서히 해 봅시다" 나는 비로소 알게 됐다. 욕심이 첫 작품을 실패로 돌아가게 했고 그 실패는 부처님의 말 없는 가르침이었음을. 나는 다시 마음을 추스려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올리고 조각칼을 잡았다. 잘 해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처님 고행상도 형상을 이루가고 있었다. 지난 봄 북대에 고행상을 모시는 날에 나는 내 자신에게 속사였다.

"나의 마음이 원만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작품도 완성되지 않는다"고

31일 국제학술회의서 도선사상 재조명

학술행사 ◇제12회 국제불교학술회의(주최 대한전통불교연구원)

- ▲주제: 道說의 재조명
- ▲일시 및 장소: 96.7.31 (전남 광주시 남도예술회관)
- ▲발표주제 및 발표자: 고려중기 사상(四聖)과 선각국사(刹)의 의의(의해), 선각국사 도선 연구-도선비문 제고(정성본), 고려태조의 정치이념과 도선의 도참사상(道參思想), 당승(唐僧) 일행(一行)의 사상과 도선(道宣) 중(中)사회과학원, 운거도응문하(雲居道應門下)의 신라승과 그 영향(한기우), 도선의 법계-해철, 도선 그리고 경보(鑑誦)·日童(日童), 도선의 비보사(非婆)와 그 영향(양은용), 경연실록과 관련하여(김정호), 최유경본비고(崔惟濟本碑考)(백운스님), 한국 풍수지리설의 구조와 원리(최창조), 도선의 사문상(沙門相)(김지건), 도선관계 문화유적(성준경), 도선의 쓰지 않는 사상(김용구)

◇학술강연회

- ▲주제: 도선의 생애
- ▲일시 및 장소: 96.7.5. 13:00 (전남 영암문화회관)
- ▲발표자: 김지건박사(정신문화연구원), 손석우(육관도사), 도형스님(대흥사)

◇"도선" 관련자료 전시회

- ▲기간: 96.7.1~7.31

제3회 연꽃 어린이 여름캠프

건강이 넘치는 계절 여름을 맞이하여 우리 새싹들이 마음껏 뛰어 놀며 부처님 말씀도 듣고 인성도 개발할 수 있는 여름캠프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처님과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알차고 재미있고 보람있게 보내는 여름방학을 책임집니다. 특히 "부처님 품안에서 스님과 법사님이 진행하고 불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캠프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기대합니다!

- 때 : 2540년 7월 23일(화)~25일(목) 2박3일
- 곳 : 청평 푸름이 후랜드리 콘도
- 누가 : 초등학교 1~6년
- 별돈 : 5만원(2박, 6식, 간식, 기념품 포함, 교통비 별도)
- 캠프 활동 내용 : 아름다운 이야기(스님이 들려주시는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우리가 만드는 부처님 나라(협동 작품 만들기), 선재동자를 찾아서(지도를 보면서 보물을 찾아가는 추적놀이), 수영교실(수영강습, 잠수대회, 수구대회), 캠프화이어(장기자랑, 불꽃놀이, 특수효과), 레고 놀이, 해적선 놀이, 암벽타기, 마운틴빌런, 슬라이드풀, 어린이 디스코, 어린이 기네스 대회
- 준비물 : 첫날 도시락/슬리퍼/세면도구/수영복/수영모자
- 문 의 : 연꽃캠프 진행본부 (02)738-7860, 935-4967

- 주최 : 불교 텔레비전
- 주관 : 불교 레크리에이션 포교회
- 후원 : 대한불교진흥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회, 한국불교태고종 중앙포교회

추천 옥산가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료하고 집중력, 판단력, 정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력을 증대하며 선(禪)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통합니다.

* 세계 유일의 보석 옥산가옥 배옥

* 眞玉은 옥산가옥에서만 판매함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痛痺痛 90%, 腎臟病 90%, 胃腸病 90%, 痔瘡 90%, 婦科 80%, 高血壓 70%, 關節痛 100%의 놀라운 치료효과를 기록했다.

대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중의연구논문 학술대회 임상실험 결과 痛痺痛 84%, 腎臟病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2.17)

「春川産 白玉성인병에 卓效」

시흥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랜딩 백화점 지하상가 위구) 吳星空 會館 777-0105

자연 산삼

천종(자연산) 산삼을 채취하였습니다.

저희는 재배산삼이 난무하는 현 상황속에서도 천연 산삼만을 고집하는 심마니동우회 입니다. 그러던중 하늘의 은혜로 천종 산삼을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산삼으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닿는 분께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하고자 합니다.

* 장뇌 산삼도 공급해 드릴수 있습니다

■ 연락처 : 심마니 동우회
전화 : 842-0094